

될 것이다.

그렇지만 오직 군자만은 그렇지 않다. 유속(流俗) 가운데 뒤섞여 있더라도 그 뜻이 더욱 깨끗하고 환란의 창황 중에 처하더라도 그 지조는 더욱 확고하여 부귀해도 음탕하지 않고, 빈천해도 그 뜻을 옮기지 않고, 위무(威武)에도 굴복함이 없게 될 것이다. 그것은 마치 바다에 파도가 쳐서 물결이 뒤집히더라도 차거나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없는 것과 같고 달이 둑글 었다가 기울어짐이 있더라도 마침내 그 본체를 잃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한 즉 뭇 사람들의 마음은 곧 강과 시내와 바위와 산과 쇠와 돌과 같은 유(類)요, 군자의 마음은 곧 바다와 달처럼 넓고 크고 높고 밝아 변치 않는 것과 같은 것이다. 지금 그대가 이미 이것으로 헌(軒)의 이름을 삼았으니 그 마음을 잡음에 있어서 이미 얻음이 있다는 것인지, 아마도 유속(流俗)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인지, 뭇 사람에게 돌아감을 매우 두려워하여 스스로 군자의 학문에 힘쓰겠다는 것인지. 내가 생각하기로는 서늘한 가을 고요한 밤이 되어 모든 사물이 소리를 죽이고 청동을 닦듯 둥근 달이 하늘에 떠오르면 헌함(軒檻)에 기대고서 하늘을 쳐다보고 땅을 내려다보아도 천지사방이 상쾌하고 시원하며 맑고도 밝아서 한 점의 짜꺼기도 그사이에 끼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창연한 빛깔과 밝은 정채(精彩)가 가슴속으로 모두 들어오리니 해월(海月)에서 헌의 이름을 취한 것이 어찌 크다 않겠는가.” 하였다. 황군(黃君)이 말하기를 “좋은 말씀입니다. 헌의 기문은 이것으로 다 되었습니다.” 하기에 드디어 그것을 적어서 둘려보냈다. 월 일에 기(記)하노라.

## 제5절 기적비(紀績碑)

### 1. 최한주의 기적비(崔漢柱紀績碑)

「1283년 고려 충열왕(高麗 忠烈王) 9년 원(元)나라 세조(世祖)가 일본을 정벌할 때 명주군(溟州君) 최한주(崔漢柱)가 종군(從軍)하게 되었다. 동해 바다에서 회오리 바람을 뜯밖에 만나 쇠닻이 배밑 바위 틈에 걸려 폭풍에 닻줄이 끊어지려 하자 수군(水軍)들이 당황했다. 한주(漢柱)가 향을 피우면서 하늘에 아뢰기를 “이 한몸을 희생하여 여럿의 목숨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였다. 하늘에 빌기를 마치고 쇠망치와 ‘정’을 가지고 짐작하기도 힘든 틈이 벌어진 바위를 찾아 격랑 속으로 깊이 들어가 그 닻을 빼내는데 성공했다. 그는 몸을 솟구쳐 물 위로 올라와 보니 배는 이미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때 떠 다니는 널빤지를 얻어 간신히 헤엄쳐 죽지 않고 살아났다. 혹은 전해오기는 자라의 등을 타고서 육지로 나왔다고도 한다.

향인(鄉人)들이 모두 그 사실을 기록하여 비석을 세웠는데 지금도 울진현(蔚珍縣)에 있

다. 최씨가 현 사람이 된 것은 이에서 비롯되었는데 공은 5대 손이다. 그러나 그 비의 소재와 흔적이 지금에 와서는 불분명하나 이 사실을 1578년 율곡전서(栗谷全書) 최수현 신도비에서 자료를 얻어 1970년 군관내의 해안 요소 일대를 조사하였으나 임진란 때 왜구들이 고비(古碑)를 훼파(毀破)한 것으로 확정하여 당시 고비재건립추진위원장인 최익성(崔益晟)과 유림(儒林)의 협의를 거쳐 울진군수 안동후인(安東後人) 김일규(金一圭)의 찬으로 연호정 옆에 1971년 11월 28일에 새로 기적비(紀績碑)를 건립하였다.

건립된 현 고비[울진고등학교 앞의 연호정 진입 산등] 일대를 마을 사람들이 옛적부터 귀비등(貴碑嶝)이라고 칭하였다 하니 이는 우연의 일치로 명기 서린 옛 자리를 다시 찾아 유림 후손들이 모여 제막식을 향파임으로 성대히 거행하였으니 “충용(忠勇)의 본보기”로 군지에 나타난 고비의 장(章)을 재현(再現)시킨 것이다.

## 제6절 만세기념탑비

### 1. 울진기미독립만세기념탑비문(蔚珍己未獨立萬歲紀念塔碑文)

역사(歷史)는 증언한다.

이 나라 민중(民衆)의 혈관 속에는 폭력에 꺾이지 않는 기개의 맥박(脈搏)이 살아 숨 쉬고 정의를 위해 생명을 던질 수 있는 피의 전통(傳統)이 용솟음치고 있음을!

기미년 3월 1일 파고다 공원의 독립선언(獨立宣言)으로 왜구(倭寇)의 말굽 아래 10년 짓밟혀온 겨레의 분노에 찬 함성(喊聲)이 활화산(活火山) 터지듯 삼천리 방방곡곡에 만길 불꽃을 뿜었다.

풍광(風光)도 수려한 울진도 불의(不義)에 좌시(坐視)하지 않은 유서(由緒) 깊은 행동의 고장이다.

와신상담(臥薪嘗膽)하던 이곳 선구자(先驅者)들. 독립선언(獨立宣言)에 고무되어 매화(梅花)·울진읍(蔚珍邑)·흥부(興富)의 장날을 가려 봉기하기로 뜻을 모았다.

3월 11일 매화 장터의 수백 군중이 외친 만세와 위세는 남수산(嵐崖山)의 기상보다 더 높았고, 4월 12일 울진읍 장날의 거사(舉事)는 선구자(先驅者)의 피검(被檢)으로 불발되었으나 4월 13일 흥부(興富) 칠보산(七寶山), 새말 배골재의 주야(晝夜)에 걸친 만세의 물결은 동해의 노도보다 더 거세었다.

충의(忠義)의 혈통을 이어온 이곳! 애국 충정의 피맺힌 절규(絕叫)는 천지신명(天地神明)에 사무쳤을 것이요, 장날 따라 연이은 봉기(蜂起)는 이 땅 지켜 온 선열(先烈)들의 넋을 달랬